

# 한국의 마취분야 간호원의 필요성과 교육 프로그램



마아가렛 콜머 수녀  
〈부산메리놀병원마취과〉

한국에 있어서의 마취간호원의 위치는 유년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마취 영역에서 마취간호원이 요구되는 것은 실제로 의심할 바가 없다. 마취분야에 있어서 간호원의 역할이 비록 마취간호원으로써 잘 숙달된 수준에 있지만 마취 전문의사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 지지도 않고 격려도 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국에는 단 129명의 마취 전문의사가 한국의 3천4백만이나 되는 인구의 마취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129명의 마취 전문의사가 진로면에서 요구되는 마취를 담당 하기에는 숫자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마취의 60% 이상이 외과의사나 또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에 의하여 실행되어지고 있다. 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마취과에 유능한 간호원들을 배치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조직적이고 정규적인

교육제도도 없고 보사부의 법적자격이 인정되지 않고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실정을 말하자면, 지방벽촌에 까지 요구되는 마취의사는 충족하지 않으며 정밀한 최신 기계를 사용하는 세밀한 현대 마취에 요구되는 정확한 처치도 또한 충분하지 않다. 마취 전문 분야에서의 지식이 불충분하고 능력미달의 요원들이 기술부족으로 혹은 기술이 없이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모름지기 피해를 주고 있다.

마취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간호원들에게 필요한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수련과정을 시작할 의도는, 의료분야에 있어서 좀 더 충분한 수련된 현명하고 안전한 마취를 줄 수 있는 요원이 아주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다.

### 1. 교육기간...18개월 (마취이론과 임상실습)

- 상기조건을 이수한자에게 병원장과 마취과장이 인정하는 수료증을 준다.
- 임상실습은 마취의사와 자격있는 간호원의 감독하에 모든 마취제의 사용과 마취할 때 자신감이 있고 마취중 위급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 마취이론은 총 420시간이다, 실습시간 2,200시간이다.

(정식강의와 세미나 형식으로)

### 2. 마취교육 내용 (1976년4월1일 보건사회부에서 제시한 것인)

- 마취학 개론 10시간
- 해부 생리의 복습 20시간
- 호흡기계통과 마취과의 관계 10시간
- 순환기계통 // 10시간
- 신경계통 // 15시간
- 신장계통 // 5시간
- 흉문계통 // 5시간
- 마취제 사용과 특성(성질)등..... 25시간
- 마취중에 마취제의 약리와 다른 약제사용 50시간
- 마취로 인한 합병증과 치료(처치). 10시간
- 마취하는 기술과 방법 215시간
- 호흡기 계통에 질환이 있는 환자의 수술 전후의 처치(예) (IPPB, 산소공급) 5시간

- 수술실 밖에서의 마취간호원의 역할 4시간  
(중환자실, 신생아실, 소생, 응급실 등)
  - 호흡기와 소생기의 사용방법 4시간
  - 마취와 관련된 물리와 화학 12시간
- 그러하여 아마도 이러한 계획은 마취분야에 부족한 마취요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969년에 마취과 간호원 수련을 위한 과정이 메리놀 병원에서 시작되었었는데 본 병원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병원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마취요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 마취 간호원협회에서 제시한대로 미국의 마취간호원 면허를 받기에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서 했다. 1974년 4월에 드디어 메리놀 병원의 교육과정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대한마취과 협회는 이 마취간호원 수련에 대한 프로그램에 반대하여 왔었고 본협회는 마취과 분야에 수련된 간호원들이 자기들의 특수직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미래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7년 4월에는 우리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련받은 간호원들 10명중에 8명이 보사부로부터 자격증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그날은 한국의 마취의 발전에 대단히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는 한국의 마취는 자격있고 책임성이 있는 요원들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며 보다 나은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 메리놀 병원의 마취간호원 교육 계획

##### 1. 메리놀병원 마취간호원이 배워야 할 규정 (조건)

- 유효한(현재활동하는) 간호원의 면허증 소지자
- 임상간호경험 1년이상 있는자
- 우수하고 심신이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
-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

#### 한국마취 역사의 요약

- 1946—현대마취 한국에 들어옴
- 1956—대한 마취의사협회 설립(확립)되다

- 1963—한국 마취과 전문의 고시 첫회 실시
- 1968—한국 마취의협회지 창간
- 1971—마취센터 설립 한국 서울
- 1973—보사부통고 마취간호원자격  
(한국마취의사회의 반대로 포기)
- 1974—첫 2N 마취간호원 자격획득  
(미국에서 수련함)
- 1975—메리놀병원 마취간호원 수련병원으로  
시인 인가됨
- 1976—3명 간호원 자격증 요구
- 1977년 3월에 갖게됨

#### 1976년 6월 30일 대한마취요원 통계(보건사회부 통계임)

면허있는 마취 전문의사	129명
마취수련의사	145명
미국에서 교육받은 마취간호원	3명
한국에서 면허받은 마취간호원	9명
한국에서 수련중인 마취간호원	27명
수련받지 않은 마취요원	불명

오늘날까지 본 병원의 마취과 간호원 수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10명이며 현재 3명이 수련받고 있다. 수련과정은 본인이 직접 가르치고 마취과 전문의사(과장)의 보충강의와 마취과와 관련된 타과의 의사진의 강의로 보충되고 있다. 10명의 간호원들은 1971년부터 완전한 과정을 거쳤으며 5명은 지금도 마취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3명은 미국에서 일반 간호직을 하고 있다. 그중 1명은 로스앤젤리스의 U.C.L.A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후 그곳에 마취간호원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는 마취간호원을 위한 자격 국가고시가 없다. 보사부에서는 1년이상 수련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고 그 기간동안 완전히 수련을 마치면 보통으로 4월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이 시행은 잠시적일 것이고 앞으로는 자격고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사부의 의정 2화에 의하면 이 시행방법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대한 마취간호원의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이었다. 이 5개년 계획은 1977년부터 1981년인테 정부의 5개년 계획안에

들어있다. 정부는 인구의 400 : 1의 비율로 마취과 요원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고려하고 있다. 앞서 말한 계획은 1981년까지 이루어질 것인가는 의문이나 보사부의 이와같은 시도는 커다란 기대를 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한국국민의 보건사업의 발전에 주목할 만한 보증을 확증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처음에 말했듯이 아직도 한국의 마취 간호원의 영역은 다른 것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취과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환자에게 마취를 할때에 마취 전문의와 마취간호원과의 상호관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인가.

미국에서는 마취와 마취간호원은 분리할 수 없으며 또한 조직화된 마취전문 의사와 조직화된 마취간호원과의 관계가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으나 보다 더 진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의 이러한 사정을 단언하는 것은 외람된 일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전 보건영역에 있어서도 완전한 성숙으로 향하여 발전단계에 있으나 마취영역에 있어서도 두 명확한 개체 즉 마취 전문의와 마취간호원이 공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영역에 진심으로 낙관하고 있는 바이고 이 희망은 꼭 필요한 현실적 요구임으로 기대하게 된다. 또한 오늘날의 한국에는 보건 사업에 당면하여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난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이 전통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 방향이 근래의 몇 년 동안에 국내 여러 지역에서 호전되어 가고 있는 점과 마찬가지로 마취 영역에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RN 교재 안내」

현재 본회에서 실시하는 영어강습의 (R. N. Review Course) 교재 "Nursing Examination" Review Book Vol. 1, 2, 3 을 안내합니다.

내용 : 내외과, 정신과, 산소아과간호학

가격 : 2,500원, (우송시엔 200원 첨부)